

## 디지털 공간에서 젠더의 주체화와 저항의 정치: 온라인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박채복 ■ 숙명여자대학교\*

### <국문요약>

2010년대 후반 페미니즘의 재부상과 대중화 속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새로운 젠더의 주체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젠더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서 온라인의 비약적인 발달은 페미니즘과 교차하며 젠더 변화의 새로운 정치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페미니즘과 기존 페미니즘 사이의 차이와 연대 문제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페미니즘 운동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사이버 테러 및 성폭력, 극단적인 여성혐오와 여성들의 반격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 등 새롭게 표출된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 정서의 가속화 현상은 기존 성평등 및 젠더 이슈와는 다른 포괄적인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으로서 온라인 페미니즘이 기존의 페미니즘과 어떤 차이와 운동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온라인과 페미니즘의 조우를 통해 젠더의 주체화와 주체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대, 정체성, 관심 영역, 활동 기반 등이 상이한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일정정도의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온라인 페미니즘, 젠더의 주체화, 저항의 정치학, 여성혐오, 디지털 공간

## I. 문제제기

2010년대 후반 페미니즘의 재부상과 대중화 속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새로운 젠더의 주체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젠더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서 온라인의 비약적인 발달은 한국

\*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학술연구교수 (E-mail: elan1109@gmail.com)

사회의 정치와 경제, 문화 전반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과 교차하며 젠더 변화의 새로운 정치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 나아가 온라인과 페미니즘의 조우는 새로운 페미니즘과 기존 페미니즘 사이의 차이와 연대 문제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페미니즘 운동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이버테러 및 성폭력, 극단적인 여성혐오와 이에 대한 여성들의 반격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backlash) 등 새롭게 표출된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antifeminism) 정서의 가속화로 인해 기존 성평등 및 젠더 이슈와는 다른 포괄적인 젠더 관점에서의 접근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혐오 범죄와 미투(#MeToo)운동 그리고 홍익대학교 누드 크로키 수업 불법촬영 사건 등 2016년 이후 터져 나온 페미니즘 의제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부터 공론화되었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저항의 정치가 확산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친숙하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성적 규범과 관행이 지배하는 문화를 통한 성적 차별과 불평등, 온라인에서의 극대화된 언어 폭력과 차별화된 여성혐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권력 행사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여성들을 결집시키고, 온라인에서의 운동 동력을 오프라인으로까지 조직화하고, 저항을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근간이 되었다. 실제 일상의 삶과 생활 속에서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충과 이들이 겪는 성차별에 대한 관심과 기억의 집합들은, 여성 개개인의 자유가 그동안 페미니즘이 표방하던 집합적 평등보다 더 중요하다 인식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변화에 대한 요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기존 제도권 여성운동이나 정치권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오로지 남성 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개인화된 주체화와 새로운 연대를 통한 저항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였다(김민정 2020; 정인경 2016).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 불리는 10대에서부터 20·30대 청년세대 여성들의 디지털 공간에서 새로운 젠더의 주체화와 주체의 정치세력화는 페미니즘의 대중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권 페미니즘과는 다른 운동 방식과 개인화된 정치 양상을 보이는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김리나 2017; 김수아 2015; 장민지 2016).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와 함께 탈코르셋운동은 기존 페미니즘 운동 방식과 다른 소통과 지속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주요한 온라인 페미니즘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김애라 2019). 이와 같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페미니즘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페미니즘의 제 4물결로 명명되기도 한다(김은주 2019; Munro 2013).

온라인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젠더의 주체화와 주체의 정치세력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12월 사이 6차에 걸쳐 이뤄진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해화역 시위에 최대 11만 명의 여성이 결집한 사건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한 페미니즘 운동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대중적 확산성을 가지면서 성폭력 이슈가 공론화되고 정치세력화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김민정 2020, 75). 개인화된, 디지털로 매개된 정치 참여(personalized, digitally mediated political engagement)(Bennett & Segerberg 2013, 5)는 정치의 개인화(personalization of politics)를 가속화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새로운 젠더 주체의 등장과 이들의 세력화 그리고 저항의 정치학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이론과 운동의 방식, 페미니즘 의제 등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과 방식을 갖고 있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젠더에 기반 한 폭력, 극단주의와 보수주의의 성장, 여권과 페미니즘에 대한 저항과 반격의 확산, 여성운동의 세계적 단절 등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젠더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적 개혁의 지난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경제 및 사회적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에 고착되어 있는 성차별 및 성별 분리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차별과 사회적 배제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일상의 모순적 상황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페미니즘은 기존 성평등을 둘러싼 제도적 개혁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젠더 감수성을 요구하며 페미니즘 의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는 온라인 페미니즘은 기존의 점진적 제도 개혁으로 추진되었던 성평등 정책과 성차별을 규범의 일부로 용인하는 사회적 담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으로서 온라인 페미니즘이 기존의 페미니즘과 어떤 차이와 운동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온라인과 페미니즘의 조우를 통해 젠더의 주체화와 주체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대, 정체성, 관심 영역, 활동 기반 등이 서로 상이한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온라인 공간에서 가시화된 페미니즘의 운동 방식과 확산성을 특징화하고, 이들의 페미니즘적 실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과 페미니즘의 조우, 정체성의 확산

과정에서 페미니즘 의제의 선점 및 이슈화 그리고 젠더의 주체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사이버테러와 여성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반격과 저항의 정치학을 통해 온라인 페미니즘의 지속성, 확장성 그리고 페미니즘적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으로서 온라인 페미니즘

온라인 페미니즘은 디지털 공간, 인터넷 및 온라인 기술 관계를 포괄하는 페미니즘을 의미한다. 전 지구적 차원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만들어진 복합적이고 새로운 사회 조건에서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을 새롭게 형성할 기회로 온라인 페미니즘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대규모 확산과 연결되며, 2011년 정도부터 발흥된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이다(Chamberlain 2017, 3). 그렇다면 온라인을 통한 페미니즘으로 명명되고 있는 온라인 페미니즘은 기존의 페미니즘으로 규명할 수 없는 새로운 페미니즘, 즉 페미니즘의 제 4물결인가 하는 질문을 남긴다.<sup>1)</sup>

온라인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의 제 4물결로 본다면, 또 제 4물결의 핵심 이슈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sup>2)</sup>이라면,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페미니즘의 의제가 아닌 새로운 의제인가 하는 논의와 함께 과거 페미니즘의 물결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등 온라인 페미니즘은 한국사회의 페미니즘의 지형 변화를 체감하

1) 페미니즘 제 4물결은 Jennifer Baumgardner가 *Fem Goo Goo, Gaga and some thoughts on balls*(2011)에서 맨 처음 제시했으며, Kira Cochrane의 저서 *All the rebel women*(2013)에서 본격적으로 개념화되었다. 제 4물결 페미니즘은 인터넷을 이용한 운동 방식과 온라인 행동주의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소셜 미디어는 페미니즘 논쟁과 저항의 재탄생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페미니즘 제 4물결의 발상지라 할 수 있다 (Baumgardner 2011; Cochrane 2013; Dean and Aune 2015; Kimble 2009; Solomon, 2009)).

2) 1989년 페미니스트 크렌쇼(K. Crenshaw)가 처음 고안한 교차성은 흑인 여성들의 차별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개념이지만, 매우 다양한 차별들 사이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불평등 문제를 젠더, 인종, 계급, 계층, 여성, 인종, 섹슈얼리티, 계급, 장애, 종교 등 상호교차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차성 분석은 서로 다른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을 동시다발적이며 다층적인 서로 맞물린 복합적인 사회적 불평등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며, 페미니스트적 실천을 보다 구체적 역사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정체성을 정치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차성을 통한 여성 억압의 복잡성과 저항의 역동성의 분석은 교차하는 범주와 질문들의 교차적 적용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주는데 유용하다(한우리 외 2018, 87-88).

게 하는 이슈임에 분명하다. 이에 온라인 페미니즘이 세대, 미디어, 디지털 등 새로운 특성과 디지털 공간에서 미디어의 기술적 변화가 추동하는 사회적 변혁과 연계되어 기존 페미니즘과는 다른 특정한 모습과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페미니즘의 제 4물결로 보고 있는 주장에서부터, 페미니즘의 주체화가 매체의 다름과 기술의 개입에 따라 주체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페미니즘으로 개념화하는 것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김은주 2019; 윤보라 2014; 한우리 외 2018).

한국에서 온라인 페미니즘은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트위터 해시태그의 공론화로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다(김은주 2019, 4). 해시태그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다종의 생각을 매우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온라인 페미니즘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김효인 2017; 김해원 외 2018). 강남역 살인사건, 서지현 미투사건, 김지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스쿨미투의 확산, 혜화역 시위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에서 시작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며 현실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온라인 페미니즘은 다양한 페미니즘 의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기존 여성운동과는 다른 이슈의 선점 및 이슈화를 통한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여성주의의 실천을 통해 온라인 페미니즘은 젠더 아젠다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우선순위도 변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을 일종의 플랫폼(platform)화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조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페미니즘 지식과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장을 만드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온라인 페미니즘의 운동 방식은 기존 운동과는 달리 익명성과 일상성에 기반 하여 개인화된 운동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은 여성들의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신속하게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과 실천 그리고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주요한 의제로 설정하여 젠더 이슈를 공론화하는데도 효용성을 갖는다. 더 나아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상호 수평적인 소통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또 학습하며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는 여러 연결행동을 통해 온라인 페미니즘은 일상 속에서 페미니즘을 접하지 못했을 다수의 여성들의 페미니즘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의 연대 및 네트워크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삶의 방식과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희망하는 순수한 여성들을 위한 연결행동(connective action)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김수아 2017, 302).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신자유주의의 경제 논리를 반영하며 포스트 페미니즘이

라는 이상 속에서 부상한 측면이 강하다(Banet-Weiser 2018; Gill 2016). 평등을 넘어 자유에 대한 갈망을 신자유주의적 방법론을 통해 찾는 등 포스트 페미니즘과 구조적 유사성도 존재한다(김애라 2019; Hester 2015). 독재 철폐와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남녀평등 및 여성해방에 관심을 가졌던 기존 여성운동의 지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생존이라는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받은 청년세대 여성들은 남녀의 차별과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며,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경쟁하여 독자적인 실력과 경력을 쌓아 성공하기를 원한다. 성차별과 평등 역시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생존 과정과 맞물리며 새롭게 재해석된다. 이런 의미에서 온라인 페미니즘은 한국사회에서 청년세대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와 욕구 및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온라인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여성들의 공간적 연결성과 감정적 연대에 대한 규명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화된 소통의 일상성과 익명성은 청년세대 여성의 문화를 반영하며, 그들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정치의 개인화라는 키워드는 온라인 페미니즘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개인화된 운동 방식과 맥을 같이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적 경쟁 속에서 일상에서의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개인화된 여성들은 생존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집합적 정체성과 협력 그리고 연대를 통한 방식으로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기존 여성운동을 비판하고 배척하는 맥락 속에서 기존 페미니즘과의 연대를 거부하게 된다(김민정 2020; 김애라 2019; 김은주 2019; 신경아 2012).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즘을 접하고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확립한 청년세대 여성들의 페미니즘 운동의 특성과 방식은 무엇인지 기존 여성운동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 작업과 이를 통한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해보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김보명 2018, 2019; 김지혜·이숙정 2017; 류진희 2015; 박영민·이나영 2019; 유민석 2015; 장민지 2016; 조혜영 2016; 홍혜은 2017).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확립되고 공론화되는 배경 및 과정을 탐색하고 온라인 페미니즘의 사회적 맥락과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촛불시위와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적용 및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페미니스트 주체로 등장한 청년세대 여성의 새로움과 다름 그리고 이들의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미투운동, 몰래 카메라 및 불법촬영 문제, 탈코르

셋운동과 같은 새롭게 제기된 페미니즘 의제들이 어떻게 운동 동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지 탐색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여성혐오의 배경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온라인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 및 탐색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가시화된 페미니스트의 운동 방식과 확산성을 특징화하고 이들의 페미니스트 실천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페미니즘이 기존 페미니즘 운동과는 결이 다른 페미니즘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과 분석틀로 분석하거나 진행 중인 논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들의 주체화와 정치세력화는 기존의 여성운동의 지향점과 성평등 규범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담론과 동력으로, 온라인 페미니즘의 의미와 한국 여성운동에 대한 기여는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체들이 차별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디지털 공간에서 집합적으로 선점 및 의제화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관계에 따라 연대하고 저항의 정치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상이한 페미니스트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새로운 페미니즘으로서 온라인 페미니즘의 지속성, 확장성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 Ⅲ. 온라인과 페미니즘의 조우, 정치성의 확산

#### 1. 온라인 공간에서 페미니즘 의제의 선점과 이슈화

온라인 공간은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자율적인 장소이자, 동시대성을 가지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젠더 변동을 경험하고 새로운 변화를 실험하는 공간이다(김리나 2017; 김수아 2017). 실제 온라인 공간에서 표출되는 젠더 담론들이 다수의 속의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온라인 공간이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 사회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 여성들에게 열린 젠더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기존 여성운동에서 배

제되었던 여성들에게 온라인 공간은 페미니즘과 조우하는 장소이자 급변하는 젠더 변동의 공론장이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젠더 변화를 추동하며 온라인 행동주의를 자발적으로 조직화하는 저항의 정치의 공간이기도 하다. 익명성과 개별성을 통한 탈권위적 소통을 근간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온라인 페미니즘이 페미니즘 실천의 주체와 방식, 그리고 효과에서 차이를 보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이다(김보명 2018).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다른 페미니즘적 지향과 논쟁들은 온라인을 매개체로 하나의 의제로 취합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 의제의 선점 및 이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개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이 존재한다. 구조와 경계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아의 표현이 연대감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온라인 페미니즘에서 목도되는 여성들 사이 주체성의 치열한 대립과 공존 혹은 특정 정체성에 대한 집합적 공감적 연대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며,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개인화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김애라 2019, 56).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개별성은 여성들이 각자의 일상의 삶과 경험, 생활 방식을 토대로 자신들의 페미니즘 의제를 선별하고 이슈화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며,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행동에 참여하게 하는 정치성을 확대하는 기반이 된다(Bennett & Segerberg 2011; Lichterman 199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페미니즘 의제의 공론화와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모색하는 여성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페미니즘은 행동주의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도모할 것을 강조한다. 온라인 페미니즘은 디지털 공간, 인터넷 기술의 출현과 연결된 여성운동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개인 간의 연결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 연결되며 확장성을 가진다. 개인화된 관계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로 결집되고, 메시지의 확산과 특정 관심사를 중심으로 느슨한 연결이 형성된다. 여기에 참여의 용이성과 주체의 다양성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 행위의 효과의 즉각성은 경험의 공유뿐만 아니라 그 확산에 기여한다.

개별적이며 단독적인 사건이 트위터의 해시태그를 통해 의제화되고 공론화되는 과정은 새로운 정치적 집단성을 낳는 확산을 쉽게 가능하게 한다. 소셜미디어는 온라인 페미니즘의 주요한 공적 플랫폼으로,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의 일상화와 대중화라는 정치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해시태그운동은 자신들의 경험을 직접 인증하고 공론화하며 더 나아가 확산시킨다. 익명성과 개별성을 통한 확산은 더 많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여성들의 저항의



정치가 조직되는 고무적인 경험을 공유하게 한다(김효인 2017; 김해원 외 2018).

주류 미디어가 이슈화하지 않은 젠더 이슈를 선점하여 이슈화하고 정치화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페미니즘의 주체들은 기존 페미니즘 의제들에 비해 자신들의 감정을 온라인 공동체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판단을 외주하며 상대적으로 개인적 관심이나 일상의 정치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양한 정체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의 공통된 관심 이슈에 대해 수평적으로 함께 결정하며 서로 다른 상반된 의견을 규합하여 이를 의제화하는 과정은 젠더의 주체화와 정치세력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기반으로 새로운 동력과 운동 방식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근간이 된다.

## 2. 복합적인 젠더 주체화와 온라인 페미니즘의 정치성의 확산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살인사건 이전과 이후 한국사회에 페미니즘의 재조명이 이루어지며 페미니즘 리부트(손희정 2015), 페미니즘 뉴웨이브, 영영페미니즘의 출현 등 다양한 키워드를 통한 온라인과 페미니즘의 조우가 이루어졌다. 온라인을 매개로한 디지털 공간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의 대중적인 확산을 통해 새로운 젠더 담론장을 형성하고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을 매개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윤보라 2014, 167). 온라인 페미니즘은 개인의 일상적 경험을 기반으로 분노와 저항을 온라인을 통한 공유와 확산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방식과는 다른 운동 방식으로 복합적인 젠더 주체화와 정치성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이 더 이상 온-오프라인으로 구별되는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 세계보다 더 강력하게 주체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됨에 따라 복합적인 젠더의 주체화 과정과 함께 저항의 정치가 조직되고 확산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페미니스트에서 페미니스트, 전문가 집단, 여성 활동가, 그냥 여성 등 '다중(multitude)'의 복합적인 정체성의 출현(윤지영 2017)으로 페미니즘 지형이 확장되었다. 이는 201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영영페미니스트로 일컬어지는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등장뿐만 아니라 반페미니즘과 포스트페미니즘 등 페미니즘에 대한 각각의 다른 입장을 가진 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중의 복합적인 정체성의 출현으로 인한 페미니즘 지형의 확장뿐만 아니라, 이슈의 선점과 공론화, 그리고 소통 방식 역시 확장되었다.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낮고, 여성의 지위가 낮은 사회일수록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페미니즘은 미러링, 집단적 발화, 공격적 발화 등 새로운 운동 방식과 소통 구조를 중심으로 이슈의 설정 과정과 공론화, 그리고 정치세력화에 이르기까지 뚜렷하고 조직화된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해시태그를 통한 소통 방식은 동시대의 여성들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효용성을 갖는다. 또한 소비자로서 여성, 시민으로서 여성, 생산자로서 여성 등 다중의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을 주체적으로 인지하게 하여 단순한 정서적인 연결을 넘어 정치적 확장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한다. 온라인과 페미니즘의 결합으로 만들어낸 변화와 이를 조직하는 힘을 체감하게 되고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들의 확장성을 통해 활력을 느끼는 정동(affect)을 체험하면서 온라인 페미니즘은 새로운 정치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김은주 2019).

온라인 페미니즘의 정치성 문제는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권력의 구성적 관계의 변화를 만들고, 다양한 차별과 억압의 근간인 가부장제의 복잡한 작동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젠더의 주체화를 추동하는데 기여한다. 기존 제도화된 페미니즘이 담아내지 못하는 여성들의 일상 속에서 직면한 성폭력 문제들에 대해 여성들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 담론장에서 페미니즘 이슈를 공론화하였다. 미투운동, 탈코르셋운동, 불법촬영 반대 시위 등은 이와 같은 저항의 정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여성들은 더 많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폭력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여 폭넓게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실천과 행동주의의 연결행동을 유연하게 수행하는 정치적 주체가 된다.

새로운 페미니즘 주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여성운동이나 제도권의 여성단체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표명하며, 엘리트 중심의 대리자 여성운동이 아닌 평범한 여성들, 당사자 여성운동을 지향하였다(김민정 2020, 75). 이와 같은 운동 방식은 차이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기존 여성운동과는 달리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간적 연결성과 감정적 연대를 통해 특정 페미니즘 의제의 공론화와 수평적 확산을 주체적으로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페미니즘 의제의 이슈화 및 공론화, 익명성 및 다중의 정체성의 허용은 평범한 여성들의 자기 규정성의 존중 속에서 과거에는 중요시되지 않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새롭게 직면한 젠더 이슈의 공유 및 확산 그리고 이에 대한 담론의 형성을 훨씬 수월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텍스트, 메시지, 사진 및 영상 등을 공유하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정보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다중의 복합적 정체성을 가진 여성 주체들이 상호 긴밀한 연대감을 만들며 성차

별과 성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담론을 비판하는 젠더 담론을 형성하는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미디어의 변화와 함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로 연결된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인 여성 개인의 익명성과 정치세력화라는 특성은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미투운동은 물론 탈코르셋운동, 해화역 시위 등에서도 각종 고발의 증거들이 입증되었다. 이를 온라인 공론장에서 빠르게 유통 확산시키고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익명적 개인의 정치세력화는 확대되었다. 운동에 대한 동참과 자발적인 참여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독려하고 다른 관련 네트워크의 참여를 통해 재현하면서 스스로에게 정치성을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적 공간을 창조했으며 주체화되었다. 남성 중심적 규범과 관행의 문화에 대해 여성들은 분노하였고, 차별과 여성혐오를 공고화하고 유지하는데 저항하였다. 이에 온라인 페미니즘은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직접 참여하는 여성들의 주체화 및 정치세력화에 기여하였으며, 제도권이나 기존 여성운동이 해결하지 못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참여를 넘어 저항의 정치학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 IV. 사이버테러와 여성혐오에 대한 반격

### 1. 여성혐오와 새로운 젠더 감수성의 공존과 혼란

온라인 페미니즘은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조롱과 혐오, 사이버테러 및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여성혐오 문제는 온라인 페미니즘 여성운동의 양상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에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반격과 함께 페미니즘은 남성혐오라는 담론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일간베스트의 출현,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페미니즘과 여성혐오 정서의 증대 그리고 소라넷 및 메갈리아 논쟁<sup>3)</sup> 등을 거치면서 반페미니즘의 반격도 거세졌다(배은경 2016; 이나영 2016; 윤보라 2014). 여성혐오와 젠더문제를 둘러싼 경험 속에서 혐오와 침묵이 공존하고, 더욱 강화되는 경쟁과 서열 중심 사회에서 평등과 차

3) 2015년 5월 29일 개설된 메갈리아는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 ‘메르스’와 페미니스트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의 ‘이갈리아’를 합성한 용어다. 메갈리아 논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리나(2017), 장민지(2016) 등 참조.

별의 공존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혐오라는 개념을 둘러싼 상반된 이해와 반응은 여성들의 반격과 주체의 정치세력화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9년 군가산점 폐지 논란에 따른 남성들의 대대적인 사이버테러와 한국사회의 대중 정서 가운데 목도되는 여성혐오 그리고 여성혐오와 결합된 반페미니즘 정서는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제도의 개선이 남성의 기득권과 대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남성 기득권의 상실에 대한 박탈감과 남성들의 피해의식이 반영된 여성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정서도 부각되었다(유정미 2019, 7).

여성혐오는 가부장제의 학습된 여성에 대한 집단적인 혐오감정이다.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남성은 이성적 존재로 집단화하고 이분화하는 여성혐오는 여성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사회적 젠더 규범에 위반하는 일탈현상으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를 구성하는 성차별적 관행을 그대로 반영한다(치즈코 2010). 따라서 여성혐오는 여성을 소극적이고 제한된 성역할의 틀 속에 가두어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남성 중심 지배사회를 유지하는 억압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김수진 2016; 홍지아 2017). 악성 댓글,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온라인 커뮤니티의 집단적 언어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심지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범인의 표적이 되는 사건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폄훼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혐오는 여성을 모욕하는 폭력적인 표현을 쏟아내는 일간베스트와 2015년 ‘페미니스트가 싫고 IS가 좋다’는 고등학생 김 군의 발언,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메갈리아의 미러링에서부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 주요한 페미니즘 의제가 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혐오는 익명성이 낳은 반사회적 일탈행위로 가짜, 거대한 거짓임에도 타인의 공감과 인정을 얻고 유통되며, 이 과정에서 그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에서 사회성을 가지며 일종의 온라인 문법이 되는 것이다(이길호 2014, 254-255). 여성혐오와 관련 메갈리아는 청년세대 여성들의 호응을 받으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여성운동으로, 여성혐오와 여혐혐, 그리고 남성혐오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정치를 더욱 부각시켰다(장민지 2016). 급기야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여성혐오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확대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결이 다른 젠더 감수성의 공존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 2.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의 반격과 저항의 정치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페미니즘의 급격한 변화를 목도하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여성혐오 논쟁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여성혐오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여혐범죄에 적극적인 반격으로 대응한 새로운 페미니즘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김민정 2020; 박영민·이나영 2019; 이나영 2016; 엄진 2016; 장민지 2016). 강남역 살인사건 이전과 이후 한국의 페미니즘의 지형 변화는 여성혐오와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와 함께 변화를 위한 조건 및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회의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과 현실과의 연계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혐범죄와 성폭력 피해는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로 인한 구조적 폭력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적 고통이다(유현미 2016)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거대한 반격은 현실과 단단히 밀착된 채로 일상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적대의 표출을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언어로 그리고 행동으로 두려움과 분노에 맞서기 시작하였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혐오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을 가진 청년세대 여성들의 분노와 저항의 움직임이 결집되기 시작하였다.

여성혐오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등장과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장되는 여성들의 반격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이에 대한 행동주의의 실천으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온라인 공간에서 페미니즘의 대중화를 경험하며 재부상한 새로운 페미니즘인 온라인 페미니즘은 강남역 사건과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광장 페미니즘으로 확장되었으며, 미투운동과 해화역 시위로 이어진 여성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억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김보명 2019). 미투운동, 불법촬영 문제 등과 같이 새롭게 부상한 젠더 이슈에 대해 여성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주체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실제 자신의 일상의 의제와 연결시켰다.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과 혼란 속에서 페미니스트 주체와 이들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새롭게 제기되는 페미니즘 의제에 대해 다양한 여성주의 사이트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페미니즘 집단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는 온

라인에서 성폭력 담론을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여성혐오를 둘러싼 비판적 젠더담론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주의를 근간으로 한 실천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며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 나갔다. 여성혐오를 중심으로 전개된 여성들의 반격과 페미니즘의 재부상은 한국 사회의 젠더 불평등과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청년세대 여성들의 저항의 정치, 페미니즘 정치를 보여주는데 충분하다. 동시에 저항의 주체인 청년세대 여성들의 생존의 위협과 위태롭고 불안정한 일상과 삶의 조건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젠더의 주체화와 저항의 정치학의 공존을 엿볼 수 있다.

## V. 온라인 페미니즘의 지속성, 확장성 그리고 페미니즘적 지향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으로서 온라인 페미니즘은 젠더의 주체화와 정치세력화의 전개과정에서 지속성과 확장성이라는 동력을 매우 전략적으로 추동하고 있다. 가부장적 질서에 작지만 미세한 균열을 주어 지금보다 더 평등하고 폭력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과 세상을 원하는 여성주체들의 저항의 정치는 기존 페미니즘과의 다른 동학과 특성을 가진다. 온라인 페미니즘의 주체인 청년세대 여성들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젠더 지형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저항 담론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온라인을 매개로 작동하는 젠더의 주체화에 대한 탐색과 저항의 정치의 확산은 페미니즘의 개입과 그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와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들의 주체화는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 주요한 구조적 문제와 그 원인, 연대에 대한 관점과 최소 조건 등에 대한 차이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온라인 페미니즘은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지며, 페미니즘적 지향이 다른 여타의 페미니즘과의 연대가 가능한 것일까. 한국사회라는 동시대성 속에도 어느 공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페미니즘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페미니즘적 지향과 규범을 가진다. 페미니즘이 젠더 의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부각 그리고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다양한 차별의 철폐와 포괄적인 인권운동을 지향하여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는 논쟁은 여성 내부의 차이와 정체성의 정치를 대변한다.

온라인 페미니즘은 기술과 페미니즘의 결합과 실천적인 행동주의를 통해 동시대성을 통한 참여를 시대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페미니즘과는 분명 다른 새로운 페미니즘이다. 여기에서 동시대성은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다른 페미니즘 물결들의 출현과 조우를 의미한다. 이에 온라인 페미니즘은 초기 페미니즘 의제와 물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결합하여 서로 다른 페미니즘 논의들을 동시에 출현시킨다는 점에서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저항의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페미니즘은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동시대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으로서 지속성을 가지며, 확장성을 갖는다(김은주 2019).

온라인 페미니즘에서 동시대성과 함께 교차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교차성은 젠더, 계급, 섹슈얼리티, 나이, 국적, 인종, 종교 등이 서로 맞물려 억압을 강화하며 권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을 규명한 페미니즘의 핵심 개념이다. 젠더 불평등과 여성 억압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규정되고 생산되는 페미니즘은 하나가 아니다. 모든 페미니스트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며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 주체, 지향점 역시 다르다. 따라서 교차성의 개념은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복잡한 젠더 변화의 지형 속에서 발전해 갈 것임을 분명하게 한다. 온라인 페미니즘에서도 주체인 청년세대 여성들의 정체성 역시 하나가 아니다. 결코 내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사이에 내부의 차이가 존재하며, 페미니즘 의제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차이와 배제가 상호 교차하고 정체성의 복합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통한 온라인 페미니즘이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많은 교차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페미니즘으로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페미니즘이 인간의 억압과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제도화된 권력 구조와 메커니즘에 의해 배제되었던 여성들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낸다면 온라인을 통해 기존 운동의 주변부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많은 여성들로 페미니즘의 확장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여성이 직면한 억압과 차별이 복수의, 탈 중심화 된, 그리고 함께 구성하는 축들을 통해 생산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기존 여성운동의

주변부에 위치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내고, 기존 주류 여성운동의 주변부에 있는 소외된 더 많은 여성들로 페미니즘의 확장성을 구현한다면, 온라인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집결된 여성들의 새로운 연대와 실천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들 여성 주체의 정치세력화를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온라인 페미니즘은 온라인의 발전에 의해서 대중화된 페미니즘이다. 또한 온라인 페미니즘은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장되어 페미니즘 의제를 이슈화하고 공론화하여 실제 정치·사회적 변화를 추동해 가고 있는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페미니즘이 포스트 페미니즘과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다는 점은 새로운 페미니즘의 담론의 탈정치화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보수화된 정치·사회적 환경이 페미니즘의 동력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포스트 페미니즘은 기존 페미니즘이 낡은 기획으로 이미 완수되었으며, 페미니스트의 이념적 목표나 행동주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자유, 선택, 개인의 책임과 일상의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며, 대중문화에 비쳐진 객체화된 여성성을 비판하고, 소비문화에 의해서 제공되는 삶의 방식을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여성을 주장한다.

온라인 페미니즘은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순수한 생물학적 여성들만의 페미니즘 운동으로 여성의 범주를 확정하며 페미니즘의 역사성을 인정하지만, 여성해방적 특성을 가진 기존 페미니즘과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페미니즘은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 시켜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여타 페미니스트 집단과의 연대 형성의 어려움이 한 계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 페미니즘이 기존 페미니즘과는 차별적인 동시대성을 가진 페미니즘으로서 1980년대와 1990년대와는 다른 페미니즘을 상정하지만, 내부의 차이와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 단일하지 않은 여성들을 단일화하고 다른 여성들을 타자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비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국사회의 성차별과 언행과 성별 위계적 관행, 데이트 폭력, 불법촬영, 여성 혐오와 성폭력에 대해 여성들이 겪는 억압은 똑같지 않으며 느끼는 고통 또한 다르다. 또 여성으로서 변화에 대한 요구도, 정치화를 위한 전략과 비전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여러 억압과 차별의 교차점에 놓인 여성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여성의 일상의 차별과 사회적 배제 경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언어화하는 일은 중요한 변화의 첫걸음이자 페미니즘의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여성의 수만큼 많은 페미니즘과 상호 교차하는 쟁점에 대해 공유할 수 있다면, 다층적 억압에 맞서는 여성들의 페미니즘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 권리, 차이와 평등 개념을 전환하고 연대를 통해 모든 페미니즘 안에는 이미 교차성이 내포해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에 한국사회의 젠더갈등을 통합하고 여성운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페미니즘과 관련된 논의와 담론에 페미니스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가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페미니즘은 개인화되고 개별화된 여성들에 의한 정치성과 운동 동력을 기반 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적 실천을 위한 집합적 차원에서 정치세력화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확장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한다.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문제, 생물학적 여성의 정체성 논쟁 등 새로운 페미니즘 내부의 차이와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 지속적인 운동 동력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여야 한다.

온라인에서 지속성과 확장성을 근간으로 저항의 정치를 정치세력화하고 페미니즘을 활성화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은 오프라인에서의 저항의 정치를 기존 페미니즘과 적절하게 연계해나가는 전략과 방법을 강구해야 실질적인 정치·사회적 변화를 추동해 낼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젠더 지향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하는 새로운 과제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김리나. 2017. “메갈리안들의 ‘여성’범주 기획과 연대.” 『한국여성학』 33(3), 109-140.
- 김민정. 2020. “2015년 이후 한국 여성운동의 새로운 동향.” 『정치정보연구』 23(2), 59-88.
- 김보명. 2018. “페미니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 사회』 118, 100-138.
- 김보명. 2019. “젠더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비교문화연구』 56, 1-25.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표현.” 『페미니즘연구』 15(2), 279-317.
- 김수아. 2017. “연결행동(Connective Action)? 아이돌 팬덤의 트위터 해시태그 운동의 명암.” 『문화와사회』 25, 297-336.
- 김수진. 2016. “여성혐오,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가져오다.” 『교육비평』 38, 163-188.
- 김애라. 2019. “‘탈코르셋’, ‘갯레디워드미(#getreadywithme): 디지털경제의 대중화된 페미니즘.” 『한국여성학』 39(3), 43-78.
- 김은주. 2019. “제 4물결로서 온라인-페미니즘: 동시대 페미니즘의 정치와 기술.” 『한국여성철학』 31, 1-32.
- 김지혜·이숙정. 2017.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실천 전략과 장치의 세속화 가능성.”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5(1), 85-113.
- 김해원 외. 2018. “5월 19일, 여성들은 해화역에 어떻게 모였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의 의제화와 조직화 과정을 중심으로.” 『언론과사회』 26(4), 85-139.
- 김효인. 2017. “SNS 해시태그를 통해 본 여성들의 저항 실천: ‘#00\_내\_성폭력’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2(4), 5-70.
- 나영. 2017. “2016년 ‘검은 시위’, ‘낙태죄 폐지’의 정치 의제화를 시작하다.” 『페미니즘 연구』 17(1), 301-320.
- 류진희. 2015. “기획 1: 한국 사회와 성, ‘쫓불 소녀’에서 ‘메갈리안’까지, 2000년대 여성혐오와 인종화를 둘러싸고.” 『사이공간 SAI』 19, 41-66.
- 박영민·이나영. 2019. “‘새로운’ 페미니스트 운동의 등장?: <불편한 용기>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34, 135-191.
- 배은경. 2016. “젠더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한국여성학』 32(1), 1-45.
- 손희정. 2017. 『페미니즘 리부트』. 서울: 나무 연필.
- 신경아. 2012. “서구사회 개인화 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페미니즘연구』 12(1), 1-33.

- 엄 진. 2016.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1(2), 193-236.
- 유민석. 2015. “혐오발언에 기생하기: 메갈리아의 반란적인 발화.” 『여/성이론』 33, 126-152.
- 유정미. 2019. “반격의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의 재정립으로.” 『한국여성학』 35(2), 1-35.
- 유현미. 2016. “사회적 고통으로서 성폭력피해의 의미구성과 젠더효과: 20·30대 여성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6 (2), 351-393.
- 윤지영. 2017. “페미니즘 난국(feminism crisis)의 도발적 변곡점.” 『한국여성학』 33(3), 141-198.
- 윤보라. 2014. “온라인 페미니즘.” 『여/성이론』 30, 166-180.
- 이길호. 2014. “‘일베’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시민과세계』 25, 244-256.
- 이나영. 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22, 147-186.
- 장민지. 2016.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주체의 운동 전략.” 『미디어, 젠더 & 문화』 31(3), 219-255.
- 정인경. 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연구』 16(1), 185-219.
- 조혜영. 2016. “상호매개적 페미니즘 - 메갈리아에서 강남역 10번 출구까지.” 『문학동네』 23(3), 1-12.
- 치즈크, 우에노. 2014.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서울: 은행나무.
- 한우리 외. 2018. 『교차성×페미니즘』. 서울: 여이연.
- 홍지아. 2017.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4개 언론사(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3(3), 186-218.
- 홍혜은. 2017. “분절될 수 없는 것들: ‘넷페미’와 ‘퀵페미’의 이항대립을 넘어서.” 『여/성이론』 37, 79-101.

#### 영문 자료

- Banet-Weiser, Sarah. 2018. “Postfeminism and Popular Feminism.” *Feminist Media Histories* 4(2), 152-156.
- Baumgardner, J. 2011. “Is There a Fourth Wave? Does It Matter? Excerpt from F'em: Goo Goo, Gaga and Some Thoughts on Balls.”

<http://www.feminist.com/resources/artspeech/genwom/baumgardner2011.html> (2020/07/30 검색).

- Bennett, W. Lance and Alexandra Segerberg. 2011.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llective Action: Social Techn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Protests against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4(6), 770-799.
- 
- \_\_\_\_\_. 2013.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ntentious politic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mberlain, Prudence. 2017. *The Feminist Fourth Wave Affective Temporality*. London: Palgrave Macmillan.
- Cochrane, K. 2013. *All the Rebel Women: The rise of the fourth wave of feminism* London: Guardian Books.
- Dean, Jonathan and Kristin Aune. 2015. "Feminism Resurgent? Mapping Contemporary Feminist Activism in Europe." *Social Movement Studies* 14(4), 1-21.
- Gill, Rosalind. 2016. "Post-postfeminism?: New Feminist Visibilities in Postfeminist Times." *Feminist Media Studies* 16(4), 610-630.
- Hester, Baer. 2015. "Redoing Feminism: Digital Activism, Body Politics, and Neoliberalism." *Feminist Media Studies* 16(1), 17-34.
- Kimble, Harriet. 2009. "The Fourth Wave of Feminism: Psychoanalytic Perspectives Introductory Remarks." *Studies in Gender and Sexuality* 10, 185-189.
- Lichtermeir, P. 1996. *The Search for Political Commu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nro, Ealasaid. 2013. "Feminism: A Fourth Wave?" *Political Insight* 4(2), 22-25.
- Solomon, Debora. 2009. "Fourth Wave Feminism." *The New York Times*, 2 November 2009, [http://www.nytimes.com/2009/11/15/magazine/15fob-q4-t.html?\\_r=0](http://www.nytimes.com/2009/11/15/magazine/15fob-q4-t.html?_r=0) (2020/ 08/ 02 검색).

Abstract

## **The Subjectification of Gender and the Politics of Resistance in the Digital Space: Focusing on Online Feminism**

Chae-Bok Park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mid the re-emergence and popularization of feminism in the 2010s, the subjectification of new genders is actively progressing in the digital space, and a gender approach to their political empowerment is required. The rapid development of online as a new communication space crosses feminism and creates a new politics of gender change. Furthermore, it is accelerating the feminist debate over the online feminist movement, along with the gap and solidarity between new feminism and existing feminism. Newly expressed feminism issues, such as cyber terrorism and sexual violence, extreme misogyny and women's counterattack, and the backlash against feminism, and the acceleration of antifeminism sentiment require an approach from a comprehensive gender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gender equality and gender issues. As a new feminist movement, this paper examines what differences and movement dynamics online feminism secures from existing feminism, and analyzes the process of subjectification of gender and political empowerment through the encounter between online and feminism.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find some answers to the question of how feminists with different generations, identities, areas of interest, and activity bases can be connected.

**Key Words:** Online feminism, subjectification of gender, politics of resistance, misogyny, digital space

□ 논문접수일: 2020년 10월 27일, 심사완료일: 2020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3일

